

사회



19일 오후 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다문화 가정 합동결혼식에서 같은 처지의 이주여성 합창단의 축하가 울리자 맨 뒷줄의 신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당신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남구 다문화 부부 10쌍 합동결혼식 감동의 도가니
이주여성 25명 합창단 웨딩축가 불러 ‘눈물 범벅’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9일 오후 2시 광주 남구 빛고을 시민문화관 공연장. 공연장 앞줄에서 피부색이 다른 이들의 어눌한 노랫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검은 피부색의 신부들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서, 그것도 광주 남구에 동지들 틈 그늘이 한국어로 부른 이 노래는 어린 나이에 한국어로 시집 온 같은 처지의 신부들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이날 합동결혼식은 (사)5·18기념재단 후원회와 광주 남구청이 공동으로 한국에 정착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다문화 부부 10쌍을 선정해 마련했다.

한국어교실을 다니는 40명의 이주 여성 중 3명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자, 뜻깊은 선물을 위해 고민하다 축하를 불러줄 합창단을 꾸리기로 한 것이다. 다문화 합창단은 축하를 위해 결혼식 3주 전부터 수업 시간에 짬을 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연습했고, 결혼식이 열린 이날 식장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다.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눈물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베트남(1명)·필리핀(4명)·캄보디아(2명)·태국(1명)·중국(2명) 등 10명의 이주여성 신부들은 타국에 시집와 어려움이 많았던 고생과 설움을 말끔히 털어낸 모습이었다.
필리핀 출신의 신부 루시아 알야퀴노(37)씨는 “한국생활 10년 만에 웨딩드레스를 입게 돼 가슴이 정말 벅찬 하루였다”며 “결혼식에 필리핀에 계신 친부모님은 참석 못했지만, 친구들의 정성스런 축하와 주위의 도움으로 한국의 ‘정’을 느낀 날이었다”고 말했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 ‘비파라치 효과’

광주·전남 시행 6개월만에 592건 접수

지난 4월 비상구 폐쇄에 대한 신고 포상제가 시행된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 6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일명 ‘비파라치’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19일 광주시·전남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이후 6

개월간 광주·전남에서는 총 5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광주의 경우 총 450건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82건(16.7%)에 대해 각각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전남은 전체 신고 102건 중 12건(11.8%)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광주는 ‘비파라치’ 1명이 불법행위 100건을 신고하는가 하면 전남에서도 한 명이 43건을 신고하는 등 ‘비파라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사고발생시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민간 감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비파라치’가 신고한 불법행위 가운데 대부분이 ‘도어스토퍼(일

명 ‘말발굽’) 부착 등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미한 위반 사안으로서 포상금 지급 건수는 전체의 15% 선에 머물러 있다.
시·도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한 업주 등에 대해 1차로 주의조치를 한 뒤 시정이 안될 경우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나 훼손 행위,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등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비파라치)에게 불법행위가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지하철 만족도 5년 연속 전국 1위

광주도시철도공사가 5년 연속 고객만족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19일 “한국표준협회 주관 ‘2010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조사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최고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인천메트로 등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지하철 부문 최고 점수인 76.6점을 기록해 지난해에 이어 다시 1위 인증을 받았다.
이번 평가를 통해 공사는 5년 연속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등 공신력 있는 평가에서 고객만족도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윤현석기자 chadol@

오늘 날씨
건조한 가을바람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12/24°C
목포 구름많음 13/22°C
여수 구름많음 16/22°C
완도 구름많음 13/24°C
구례 구름많음 10/24°C
애남 구름많음 10/24°C
장흥 구름많음 11/25°C
고흥 구름많음 11/25°C
순천 구름많음 13/25°C
영광 구름많음 10/23°C
진도 구름많음 11/23°C
전주 구름많음 11/24°C
남원 구름많음 8/24°C
목포 구름많음 15/19°C
(오전) 바다, (오후) 바다, 주간날씨, 기상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인권평화재단 출범

천주교 광주대교구 설립 ... 국내·해외 사업

인권과 세계평화 관련 사업을 펼칠 광주인권평화재단(이사장 김희중 대주교·이하 인권평화재단)이 오는 25일 오후 5시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성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해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지난 8월 설립된 인권평화재단(최초기금 5억원)은 재단의 운영과 재정을 돕는 운영위원 회와 학술 및 국제협력 지원회 등 전문가 집단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권평화재단은 광주가톨릭센터 4층에 사무실을 두고 인권 교육과 학술활동, 법률구조 활동 등의 국내사업과 해외 풀뿌리 민주인권 평화활동, 난민촌 지원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출범미사는 운공회 대주교를 비롯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고초를 겪은 김성용, 조비오, 정구안, 정형달, 남재희 신부 등 원로들과 교구사제들이 공동으로 집전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모범음식점 10곳 선정
광주시 북구

광주시 북구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달 간 모범음식점 233곳을 대상으로 위생·친절 평가를 실시해 10곳의 최우수 모범음식점을 선별한다고 19일 밝혔다.
평가는 소비자식품위생감사원과 음식 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소속 회원이 맡게 된다. 평가 항목으로는 좋은 식단 실천·위생 친절서비스·주방위생·영업장 위생·화장실 위생 등 6개 항목이다. 최우수 모범점으로 선정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표창장과 함께 우수업소 표지판을 부착해준다.
/이종환기자 gilee@kwangju.co.kr

교사 임용 정원 사전 예고

내년 초·중등교사 임용시험부터는 임용 정원을 최소 6개월 전에 알려주는 사전예고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9일 “교사 임용정원을 시험 직전에 알리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사전예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나SK 카드
2500만 고객을 위한 블록메스터 카드
Touch 1 카드 출시!
나라의 번을 움직일 카드, 고객이라면 이제 지급 속에 하나SK카드 하나만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